

## ○ 연구원 야간 한문 강독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뜨거운 여름을 여는 청량한 야간 한문 강독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의 여름밤은 낮보다 뜨겁습니다. 열대야로 뒤척이는 밤 대신 시원한 지성의 바다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전주대학교 김건우 교수(우리 연구원 이사)와 함께하는 '호남 인물과의 만남', '전북 의병 사료 읽기'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고전문화의 가치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일입니다.

### ♣ '호남 인물과의 만남' 모임 안내 \* 선착순 모집(15명)

첫 번째로 만나는 인물은 노사 기정진(1798~1879)입니다. 기정진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그 후 전남 장성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어릴 적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지금도 흔히 회자되는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성의 눈 하나 없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장안만 목불여장성일목(長安萬目不如長城一目)"의 주인공입니다. 기정진의 연보(年譜)를 중심으로, 기정진의 삶과 시대적 고민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의 손자 송사 기우만 역시 한말 성리학자로, 의병활동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 ◆ 호남 인물과의 만남

- ◎ 교 재 : 노사 기정진 연보(年譜)
- ◎ 시 간 : 매주 수요일 18시 30분 (7월 13일 개강)
-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이사)
- ◎ 대 상 : 시민·학생 누구나 가능 (수강료 무료)

♣ '전북 의병 사료 읽기' 모임 안내 \* 선착순 모집(15명)

한말 전북 지역에는 이석용, 임병찬, 전해산 등 많은 분들이 의병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습재 최제학이라는 분의 관련 자료를 모아둔 『습재실기』를 읽어 볼 예정입니다. 그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스승인 면암 최익현의 의병활동을 도우며 불꽃같이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감히 타국 만리를 가는 걸 어렵게 여기겠습니까! 생사(生死)란 운명이기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념실거리는 바닷물에 제 몸을 던져버리는 것이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며 왜놈들에게 부림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낫습니다.” - 면암 최익현에게 보낸 편지 중-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와 물질적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온 국민의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전 이 분들의 순수했던 초심과 삶에서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전북 의병 사료 읽기

- ◎ 교 재 : 최제학의 『습재실기』
- ◎ 시 간 :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7월 14일 개강)
-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이사)
- ◎ 대 상 : 시민·학생 누구나 가능 (수강료 무료)

뜻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나 아쉽게도 장소관계로 15명 선착순입니다. 7월 13일부터 연중무휴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강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